

10 현장취재-故김백봉 명예교수 49재 열린 수국사



① 고인의 손녀 안귀호 씨가 내빈과 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백봉 부채춤'을 선보였다. ②故김백봉의 제자 정은혜·안나경·임성옥 씨가 김백봉의 산조춤 '청명심수'를 재현했다. ③ 안병주 교수(무용학부장)와 고인의 제자를 비롯한 우리학교 졸업생들이 굿거리 기본 동작을 추며 고인을 추모했다. ④故김백봉 49재는 은평구 수국사 황금법당에서 진행됐다. 해당 49재에는 김백봉춤보존회, 우리학교 졸업생, 사회각종 내빈 등 16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배웅했다. (사진=서세종 기자)

故김백봉 명예교수의 삶을 회고하다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서세종 기자 sejong0362@khu.ac.kr

하늘이 유난히 맑던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의 수국사에서 고(故) 김백봉(무용학) 명예교수의 49재가 열렸다. 우리학교 무용학부장이자 고인의 딸인 안병주 교수와 고인의 제자들, 그리고 김백봉춤보존회 등 160여 명의 내빈이 지키는 가운데 고인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우리신문은 49재를 지내며 고인과의 추억을 다시 어루만진 제자들이 기억하는 고 김백봉 교수의 생전 모습을 들어봤다.

아이의 순수함과 열정이 공존했던 고인의 삶

“무대 아래에서의 김백봉 선생님은 아이 같았습니다. 때론 친구 그리고 연인 같기도 했고요” 춤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했던 고인이었지만, 제자 김호순 씨가 기억하는 고인의 생전 모습은 엄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러나 무대 조명 아래 고인은 어딘가에 몰두한 아이 같고도 단호한 예술가로 돌변하곤 했다. 김 씨는 “선생님께 처음 장구춤을 배우곤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눈을 부릅뜨시며 난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생생해요”라며 십수 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이어 “그랬던 저는 장구춤을 여태까지 하고 있죠”라고 웃어보이며 고인의 날카로웠던 안목을 회상하기도 했다.

제자이자 딸로서 고 김백봉 교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 왔던 안병주 교수의 기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안 교수는 고인이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다고 표현했다. “흔히 누군가와 다툼 이야기나 험담이 들려도 일말의 반응조차 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무용에 현재의 생각과 가치관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 고인의 철학이었고, 안 교수 역시 같은 신념으로 제자를 육성하고 있었다. 그는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부채춤’, ‘화관무’ 등 김백봉 교수가 탄생시킨 순수하고도 독창적인 안무에 일조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무용가에서 27년 교육자로

안 교수는 안무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고인에게도 정치계에서 내밀어 오는 무수한 유혹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인이 택한 길은 정치가 아닌 교육이었다. “김백봉 선생님이 행선지를 경희대학교로 결정하셨을 때 무용계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당시는 예술가가 교수가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렇지만 춤을 추는 것만큼이나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인은 그렇게 우리학교 교단에서 27년간 자리를 지키며 술한 제자들의 뿌리가 됐다.

고인의 제자이기도 했던 심혜경 교수(무용한외과학 연구센터)는

“김백봉 선생님은 정신적 예술성을 업그레이드시켜 주신 분”이라고 회고했다. “선생님께서 늘 예술을 할 때 우주를 품에 안는 느낌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렸을 땐 그 말이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점차 정신적 세계를 우주처럼 무한히 확장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알게 됐습니다” 딸의 무용 스승이기도 했던 고인은 단 한 번도 안 교수의 춤을 틀렸다고 표현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자존감을 갖고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어요. 어떤 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 세계에 정답을 부여하지 않으셨죠” 시간은 쏠아진 화살처럼 흘러, 고인의 교육을 거쳐 간 제자들은 이제는 스승이 됐다. 그들은 한국 무용의 자부심과 근원으로서 고 김백봉 교수의 예술 정신을 전승하고 있었다.

교통도 겪을 수 없었던 춤에 대한 의지

무용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고인에게도 고비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안 교수는 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1972년의 어느 여름날의 기억을 되짚었다. “의사가 춤을 출 수 없다는 선고를 내릴 만큼 심한 부상을 당하셨어요. 택시로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려 대사관 예술 공연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날, 목발을 짚은 채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는 자신을 비관하셨습니다” 그러

던 고인은 대사관을 뒤로한 채 연습실로 달려갔다. 연습실엔 ‘봉산탈춤 무보집’의 삽화를 그리고 있던 화가가 재생한 가야금 산조가 흘러나오던 참이었다. 걸을 수 없었던 말이 무색하게, 고인은 목발을 내려놓고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그렇게 고인의 삶의 제2막을 연 작품이 ‘청명심수’였다.

이날 49재에서는 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제자들이 ‘청명심수’를 재현해 보이기도 했다. 생전 고인은 청명심수를 ‘내 평생의 일기장’이라 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길목에서, 고인은 96년 삶의 희로애락을 조용한 미소로 바라볼 뿐이었다.

수국이 싱그럽던 49재 현장을 엿보다

고 김백봉 교수의 49재는 수국사 대법당에서 올려졌다. 그의 업적과 한국무용계에서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듯 법당은 사람들로 붐볐다. 안 교수는 “김백봉 선생님 밑으로 4대손까지 오는 자리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법당 한쪽엔 연륜이 느껴지는 무용가들이 자리를 채웠다. 다른 한쪽엔 젊은 무용가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고인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못했지만, 고인의 유산을 이어 나갈 자라나는 무용가들이다. 그곳은 김백봉 이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그곳은 김백봉 이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그곳은 김백봉 이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행사의 막바지에는 고인을 위한

공양 춤이 준비됐다. 고 김백봉 교수의 가장 큰 유산인 부채춤과 그가 가진 삶의 이야기를 집약하는 청명심수를 고인의 손녀(안귀호)와 제자들(정은혜, 안나경, 임성옥)이 직접 준비했다. 고인의 부채춤은 화려한 부채의 멋과 경쾌한 음악으로 구성돼 있다. 유족은 자리가 자리인지라 춤을 고르기 위해 앞서 고민한 듯했다. 그러나 부채춤은 우주의 풍성함과 생명력을 육체에 담아내고자 한 고인의 예술정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또 다른 춤인 청명심수는 고인을 교통사고의 절망 속에서 일으킨 작품이다. 안 교수는 이를 “사고를 사고로 끝내지 않고 춤으로 승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제자들의 움직임 속에서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그의 유산이 이어지길 희망하는 마음이 엿보였다.

49재는 고인이 만든 굿거리 기본 동작으로 마무리됐다.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이 모두 모여 춤을 췄다. 장단이 끝나자, 고인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제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인의 영혼은 그날부로 명부시왕의 일곱 왕에게 최종 심판을 받고 환생한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법당 밖에서는 짙은 햇빛이 며칠간 내린 비로 축축해진 땅을 굳히고 있었다. 안 교수는 “김백봉 선생님이 공연하는 날은 비가 오다 가도 한두 시간 전이면 비가 멈췄어요”라고 말한다. 고인에게 비를 멈추는 신비한 힘이 있었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